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21년 6월

본 자료는 전월(2021.5.1~2021.5.31.) 제공되었던 주요 동향 및 주요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목차

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중국 CCSA, 제18차 중국 정보 통신 표준 회의 개최	21.04.25
2. 중국 CCSA, 클라우드컴퓨팅 워킹그룹 16차 회의 개최	21.04.30
3. 유럽 ETSI, '내일의 세계 설계'를 향한 'ETIS Strategy" 발간	21.05.05
4. 3GPP, Release17 RAN 진행 상황과 Release 18 계획 소개	21.05.11
5. 유럽 ETSI, 미래 ICT 기술 트렌드에 대한 백서 'ETSI Technology Radar' 발간	21.05.12
6. GSMA, 각국 정부에 5G에 대한 6GHz 대역 라이선싱 요청	21.05.17
7. ITU와 UNDP,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체(Joint Facility) 구축	21.05.19
8. 미국 NIST, AI 신뢰성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 초안 발표	21.05.19
9. Zigbee Alliance,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로 개명	21.05.20

II.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10. 유럽연합, 유럽의 회복을 위한 산업 전략 업데이트	21.05.05
---------------------------------	----------

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중국 CCSA, 제18차 중국 정보통신표준회의 개최 (04월 25일)

중국 CCSA(중국통신표준화협회)는 4월 25일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신 인프라* 강화를 위한 표준”을 주제로 정보통신표준총회 및 제18차 회원총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 인프라 : 2020년 중국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을 기초로 하여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등의 서비스를 위한 기초시설’로 정의하였으며, 5G, 사물인터넷, 공업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포함됨 (출처: 연합뉴스, 2020.04.22.)

○ 제13차 표준화 5개년 계획의 성과

- 5년간 854건의 산업 표준, 86건의 국가표준, 290건의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1) 5G 분야 R16에서 21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표준 점유율 40%에 달하는 등 국제표준 기여 능력 크게 향상
 - 2) 국가 주도 표준, 시장 주도 표준의 독자적인 이분화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한 경제의 고품질 성장 주도능력 향상
 - 3) 통합된 표준화 결과 제시, 품질, 효율성의 변화와 융합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기술이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그린화를 가속하는 등 융합 산업에 대한 투자능력 향상
 - 4) 회원수가 2016년 약 400개사에서 2020년 720개사로 80% 이상 증가

○ “신 인프라” 조정 및 표준 사용 강화를 통한 경제의 고품질 성장 촉진

- (공업정보화부(MIIT) 차관) 5G, 산업용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이 중점 표준화 분야이며, “신 인프라” 구축 및 산업의 고품질 개발의 촉진을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1) 고품질 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신 인프라” 구축 및 최상위 설계와 협력 강화
 - 2) 핵심 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 공급망 현대화 수준 업그레이드
 - 3) 국제 교류 및 산업 협력 강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국내·외 이중-순환(Dual Circulation) 발전 추진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기술관리부 1급조사관) 정보통신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있어 표준화가 주도적, 지원적, 체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1) 표준 시스템 폭넓은 개선, 핵심 분야의 표준 개발 및 산업 개발 지원
 - 2) 국제 표준화 교류 및 협력 강화
 - 3) 작업 메커니즘 혁신 및 표준 분야 제도적 개방의 새 장 구축

- (CCSA 회장) “신 인프라”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도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며, “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과 관련된 6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 1) 제14차 표준화 5개년 계획 공식화
- 2) 표준화를 통한 혁신 촉진
- 3)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최적화
- 4) 경제,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5) 양질의 정보 기반 네트워크 구축
- 6) 국제 협력을 위한 상생 발전 모델의 구축

○ 2020년 요약 및 2021년 주요 내용

- 표준 프로젝트 수립, 연구개발, 국제 교류, 멤버십 개발 등의 측면에서 2020년 표준화 성과 및 국가 표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표준 프로젝트 467개, 중점 프로젝트 328개, 협회 단체표준 프로젝트 82개, 연구과제 142개 항목 등을 발표하여 산업 발전과 기업의 연구개발, 정부의 의사결정 및 업계의 요구에 부응한다.
- 또한, 표준 체계 연구, 글로벌 표준화 협력, 정보통신 산업의 협력 강화, 협회 조직 구성 최적화, 표준화 작업 관리 강화, 멤버십 강화 등 6개 분야의 17개 항목 중점 목표 도출 및 국내·외 표준화를 통해 산업망, 혁신망, 표준망의 융합에 힘쓰며, 신 시대의 정보통신 표준화를 추진한다.

○ “신 인프라” 표준 발표식 및 2021년도 중국정보통신협회 과학기술대상 시상

- 금번 회의에서 “신 인프라” 표준 305건에 대한 발표식과 2021년도 중국정보통신협회 과학기술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 (기사원문) <http://www.ccsa.org.cn/detail/4135?title=凝心聚力谋新篇%20%20扬帆起航开新局>

2. 중국 CCSA, 클라우드컴퓨팅 워킹그룹 16차 회의 개최 (04월 30일)

중국의 CCSA(중국통신표준화협회)는 TC1(인터넷및애플리케이션기술위원회)의 WG5(클라우드컴퓨팅 워킹그룹)의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 업체, 기업 사용자 등을 포함한 70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응용 분야의 표준을 검토하였고, 각 측면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및 보안 측면

-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신뢰성 있는 연구개발 및 보안 성숙도 모델” 등의 표준의 심사 및 검토를 진행하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플랫폼 요구사항”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성숙도 모델” 표준을 채택하였다.

○ 클라우드 서비스 측면

- “공유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 및 개발 중인 표준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고, “클라우드 공급 및 사용을 위한 평가 방법” 승인 신청서 제출하였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소프트웨어 품질 측면

- “분산 미들웨어 서비스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3부: API 게이트웨이” 및 개발 중인 표준에 대해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분산 미들웨어 서비스 기술 요구사항” 통과하고, “4부: 카오스 엔지니어링 플랫폼”과 같은 표준 수립을 위한 제안을 했다.

○ 다중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관리 네트워크 측면

- “다중 클라우드 플랫폼 간 가상 클라우드 상호 연결 서비스 요구사항” 및 개발 중인 표준에 대해 검토 및 논의되었으며, 제안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 산업용 클라우드 측면

- “공공 클라우드 모델의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및 개발 중인 표준에 대해 검토 및 수정안 제안이 승인되었고, “비디오 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요구사항” 및 “1부: 비디오 라이브 방송 시나리오”의 제출 및 “신뢰 가능한 디지털 정부 요구사항 1부: 통합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 일반기술”이 통과되었다.

○ 연구개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측면

- “연구개발 운영 솔루션 역량 등급 요구사항” 및 개발 중인 표준에 대해 검토 및 수정안 제안이 승인되었다.

☞ (기사원문) <http://www.ccsa.org.cn/detail/4146?title=标准助力行业“云效能”提升>

3. 유럽 ETSI, ‘내일의 세계 설계’를 향한 ‘ETSI Strategy’ 발표 (05월 05일)

유럽의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연결된 사회를 위한 ICT 표준 개발’의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략은 사회-경제, 정책, 기술 동향의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배경 분석과 전략 포지션, 미션과 비전, 전략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략 포지션 - ETSI 운영의 기본 원칙

1) 글로벌 커뮤니티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글로벌 멤버십과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보유
- ICT를 기반으로 만들고, 사용되는 산업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작용
- 글로벌 협력의 추진 및 파트너십 지지
- 회원 기반의 활동
- 표준을 통한 이익과 인식 홍보

2) 혁신적, 시장 주도적

- 신기술 개발 및 출현 선도

- 시장, 소비자 나아가 사회의 이익을 위한 시의성, 품질, 반응에 기반
- 포괄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ICT 표준 포트폴리오 제공
- 모든 시장에서 채택되고, 가장 경쟁력 있도록 하는 표준 개발
- 표준, 방법론, 규정 및 과정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기여하는 혁신을 환영 및 장려
- 표준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의 가능성 제공
- ETSI 표준의 가시성, 가능성 촉진

3)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공인된 유럽 표준화 기구

- WTO/TBT 규정 및 EU 규제 준수
-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 EU의 전략 목표, 규제 요구사항, 정책 지원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표준화 활동
- 친환경, 디지털, 회복탄력성 있는 EU 산업 전략 목표를 지원 및 촉진

○ ETSI의 전략

- **미션** : 이해당사자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ICT 체계와 서비스 표준의 개발과 홍보에 협력하는 플랫폼의 제공
- **비전** : 미래 세계의 설계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연결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ICT 표준 개발을 선도
-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 1) 디지털의 중심(Being at the Heart of Digital) : ETSI는 디지털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고 ICT 표준화 요구사항이 집약되는 장소로서, 장비,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한 포괄적인 ICT 아키텍처와 기술을 지원
 - 2) 표준 조력자(Being an Enabler of Standards) : ETSI는 표준 제정과 채택에 대한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지원을 제공하고, 규제, 입법, 정책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표준을 가능하게 함
 - 3) 글로벌화(Being Global) : ETSI는 글로벌 멤버십과 ICT 관련 분야 및 전 지역에 걸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용을 목적으로 한 표준을 개발.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위해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ESO(유럽표준화기구)로서 유럽 경제에 기여
 - 4) 다목적화(Being Versatile) : 작업 방식을 혁신하여, 광범위한 참여와 혁신, 개발 시간, 글로벌 적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테스트수트 및 툴 개발과 관리, 표준 관련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제작을 지원
 - 5) 포괄적(Being Inclusive) : ETSI 멤버십은 지역부터 글로벌에 걸친 시장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대표하며, 비즈니스와 산업의 디지털화, 순환경제, 현대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ETSI는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조직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소비자, 사회 및 환경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됨

☞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922-designing-tomorrow-s-world-etsi>

[i-introduces-its-new-strategy-in-line-with-its-ambitious-vision](#)

4. 3GPP, Release 17 RAN 진행 상황과 Release 18 계획 소개 (05월 11일)

3GPP RAN 의장(Wanshi Chen)은 ETSI 온라인 웨비나(5월 5일)에서 Release 17 RAN의 진행 상황과 Release 18 계획을 발표하였다.

Release 17 RAN1 물리 계층 규격은 예정대로 2021년 12월 확정(freeze)되며, RAN2,3,4는 2022년 3월 Stage 3단계로 확정될 예정이다. 2022년 9월에는 ASN.1의 확정과 성능규격이 완료 예정이고, 이를 위해, 21년 4분기에 2번의 RAN1 회의와 22년 1분기에 RAN 워킹그룹별 2번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Release 18과 관련해서, 포함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온라인 RAN 워크샵(메일 토론)을 6월 28일~7월 2일 개최하고 2021년 12월 RAN 94차 총회(RAN #94)에서 Release 18 패키지 승인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RAN 워크숍에서는 eMBB 주도 작업, 비eMBB 기반 기능, 교차 기능에 대한 기고를 취합할 예정이다.

(기사원문) https://www.3gpp.org/news-events/2194-ran_webinar_2021

5. ETSI, 미래 ICT 기술 트렌드에 대한 백서 'ETSI Technology Radar' 발간 (05월 12일)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는 ICT 기술 트렌드의 영향과 발전에 대한 ETSI 회원과 ICT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와 촉진을 목표로, 미래 ICT 기술 트렌드에 대한 백서 'ETSI Technology Radar'를 발간하였다.

ETSI의 "디지털의 중심(Being at the Heart of Digital)" 전략에 따라, ICT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ETSI가 영향력을 가진 기술들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고, ETSI 이사회, OCG(Operational Co-ordination Group), ETSI 사무국에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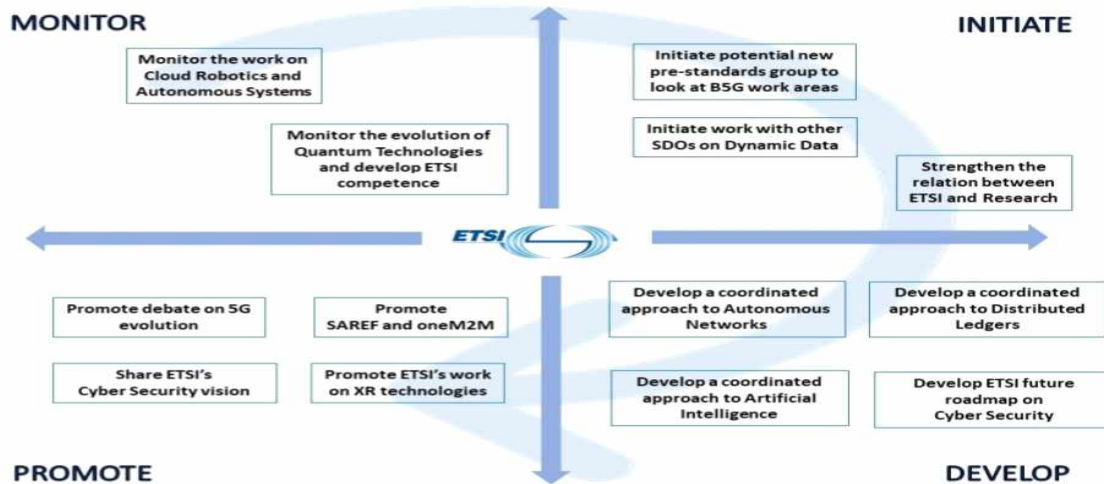
선정된 트렌드 기술은 다음의 10가지이며, 백서는 기술 동향 뿐 아니라, ETSI의 현재 작업과의 연관성, 기술 발전에 대한 잠재적 일정, 어떤 표준화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ETSI 커뮤니티에 제시하였다.

5G 진화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 통신망	사이버 보안	분산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B5에서 6G mmW에서 THz 완전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생애주기 머신러닝 AI 보안, AI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Zero touch 자기 조직화 자기 힐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개인정보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허가형 분산원장 DAGs(비순환그래프)
동적 데이터	확장현실	IoT	양자	자율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 시맨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톨로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팅 보안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로보틱스 지능형 교통 무인 시스템

또한, 선정된 10개 기술에 대한 성숙도를 분석하여, 권장사항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모니터링(MONITOR) : 표준화가 미성숙한 분야로 ETSI 참여에 대한 탐색 필요

- 착수(INITIATE) : ETSI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성숙한 분야
- 개발(DEVELOP) : 미래 표준 형성을 위해 이미 ETSI 커뮤니티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
- 홍보(PROMOTE) : ETSI에서 표준 개발에 참여하여 있으며, 추가 지원과 홍보를 구상



[출처 : ETSI technology radar]

트렌드 분석을 고려할 때, 백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비-완전성(Non-exhaustive): 선정된 10가지 기술은 ETSI의 현재 및 향후 작업과 회원 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핵심 사례임. 그러나, 빠른 기술 혁신 속도에 의해 식별되지 않은 기술들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 분석이 요구됨
- 분야간 제휴(Interdisciplinary): 많은 트렌드 기술들이 상호 작용하여 중복될 수 있으므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ETSI 기술그룹간의 조정이 필요. ETSI 사무국, 이사회, OCG는 필요한 조정 노력을 수행
- 중단이 아닌 진화(Evolution not disruption): 트렌드 기술들은 진화되는 기술로, 기존 ETSI 기술그룹에서 이미 다루고 있음. 성숙도와 트렌드 기술의 범위는 향후 진화할 것이며, ETSI는 혁신에 대비한 "the next big thing"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표준의 기회를 다룰 올바른 전략을 수립해야 함. 타 SDO와 관련하여, 산업에서의 혁신, 파트너십, ETSI의 장점간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함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925-etsi-releases-a-white-paper-on-future-ict-technology-trends>

6. GSMA, 각국 정부에 5G에 대한 6GHz 대역 라이선싱 요청 (05월 17일)

GSMA는 각국 정부에 5G의 발전을 위해 6GHz 대역 라이선싱과 아래의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5G의 최고속도와 역량은 6 GHz의 mid-band 대역에 달려있지만, 각 국 정부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6 GHz대역은 이동통신망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통신, 공장을 위한 데이터 통신 속도와 역량 측면에도 필수적이다.

- 1) 최소 6425-7125 MHz 대역의 5G 라이선싱
- 2) 백홀 서비스 보장
- 3) 국가적 필요성, 현재 사용되는 광섬유 설치현황에 따라 5925-6425 MHz 대역은 기술 중립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면제 기준으로 개방 가능

이와 함께, GSMA는 Ericsson, Huawei, Nokia, ZTE와 함께 5G의 미래를 위한 6GHz 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기사원문) <https://www.gsma.com/newsroom/press-release/gsma-calls-on-governments-to-licence-6-ghz-to-power-5g/>

7. ITU와 UNDP,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체(Joint Facility) 구축 (05월 19일)

디지털 기술과 작업 방식의 증가는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개발 목표 달성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변화로 인해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없고,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통신연합)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프로그램)는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였다.

공동체는 UN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을 지지하며,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디지털 기회를 만들기 위한 ITU/UNDP 공동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고자 하며, 공동체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디지털 사용능력 및 기술 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ITU/UNDP 자원 안내
- 2) 디지털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수요 영역을 파악하고, 필요 시 새로운 활동 개발을 위한 최종 사용자와 협력
- 3) 미충족된 이해관계자의 요구 패턴과 동향 파악
- 4) 파트너를 위한 디지털 전략,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 기타 우선순위가 높은 운영 영역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 운영, 프로그램적 지원을 제공

디지털 및 사회의 포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은 지역 수준과 국제 수준에서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 뿐 아니라 디지털 역량 지원이 필요한 다른 그룹도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는 ITU와 UNDP의 협력을 강화시켜 디지털 역량 개발에 있어 단일 구조를 만들고자 하며, ITU는 ITU-D(Development sector)을 통해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며, UNDP의 광범위한 입지와 주제 전문가들은 주요 지역적인 맥락과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의 매칭을 제공한다.

☞ (기사원문)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cm29-2021-ITU-UNDP-Joint-Facility-Digital-Capacity-Development.aspx>

8. 미국 NIST, AI 신뢰성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 초안 발표 (05월 19일)

NIST는 AI의 신뢰성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r Trust(NISTIR 8332)) 초안을 발표하였고, 7월 3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인간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잠재적인 신뢰성에 기여하는 9개 요소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9개 요소는 기존에 NIST와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발행한 AI 신뢰성의 기술적 요구사항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 * 정확성(accuracy), 신뢰성(reliability), 회복성(resiliency), 객관성(objectivity), 보안성(securit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안전성(safety), 책임감(accountability), 사생활(privacy)

☞ (기사원문)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1/05/nist-proposes-method-evaluating-user-trust-artificial-intelligence-systems>

9. Zigbee Alliance,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로 개명 (05월 11일)

2002년 설립, 20년간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개방형 표준을 개발해 온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가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로 개명하였다. 지그비 기술에 대한 Zigbee 브랜드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CHIP(Connected Home over IP)으로 알려진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 스마트홈 네트워킹 표준의 브랜드로 매터(Matter) 마크를 발표하였다. 매터 마크는 위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객체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설계와 규모에 맞게 호환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지그비 얼라이언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0년 560개 이상의 지그비 기술 장치가 인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5억 개 이상의 지그비 칩셋이 판매되었으며, 2023년까지 약 40억 개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분기 인증이 2020년 1분기 보다 50% 이상 초과함에 따라 간편한 연결성에 대한 소비자와 상업적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매터(Matter) 장치를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원문) https://zigbeealliance.org/news_and_articles/connectivity-standards-alliance/

Ⅱ.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10. 유럽연합, EU Industrial Strategy 2020 업데이트 (05월 0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회복과 단일시장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 발표된 EU 산업 전략(EU Industrial Strategy 2020)을 업데이트하였다.

업데이트된 전략은 COVID-19 위기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디지털적이며, 탄력적이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트윈 전환(친환경, 디지털)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재정지원 및 대책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이번 전략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유럽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탄력성 강화, EU의 기술 및 산업 의존성 분석, 트윈 전환(친환경 및 디지털) 가속화를 주로 다루며 특히, 기술 및 산업 의존성 분석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등에서 표준 제정에 있어 더 많은 리더십을 위한 전략과 규제 변경을 제안함과 동시에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공개된 협력을 제시한다.

☞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1884